

꽂꽂 언 광주소비...신용카드 매출 3285억 감소

한은 1~9월 자료, 1년 전보다 크게 줄어...음식·숙박업 큰 타격
7월 -1255억·8월 -1404억·9월 -841억 석 달 연속 감소 추세
개소세 인하 자동차 883억↑·'집콕' 가구·가전 매출은 259억↑

코로나19로 지역소비가 얼어붙어 올해 1~9월 광주 신용카드 매출이 1년 전보다 3285억원 빠졌다. 특히 숙박·음식점업(-1648억)과 백화점·마트 등 종합소매점(-773억) 타격이 컸다. 21일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광주 7조1849억원·전남 6조2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광주는 3285억원(-4.4%) 감소하고, 전남은 166억원(0.3%)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신용카드 사용액은 408조2057억원으로, 전년(397조)보다 11조1478억원

(2.8%)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지역은 전남(166억)과 서울(19조6118억) 2곳 뿐이었다. 올해 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국에서 광주 1.8%, 전남 1.5%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광주 신용카드 사용액은 7월(-1255억)과 8월(-1404억), 9월(-841억) 석 달 동안 연속 감소 추세다. 코로나19 확진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난 2월(-111억) 이후 3월(-610억), 4월(-172억) 내리막 길을 걷더니 확산세가 꺾인 5월(301억)과 6월(427억)에는 소비가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1~9월 누적 사용액은 '플러스'를 나타

타냈지만 하반기 들어 7월(-203억), 8월(-20억), 9월(-91억) 등 3개월째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소비가 줄어든 업종은 '숙박·음식업'이었다. 이 기간 동안 숙박은 60억원, 음식점은 1588억원 등 총 매출 1648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업 신용카드 사용액은 1월(-21억), 2월(-104억), 3월(-269억), 4월(-157억), 5월(-59억), 6월(-107억), 7월(-379억), 8월(-259억), 9월(-293억) 등 올해 들어 9개월 내내 매출이 줄고 있다. 숙박·음식업에 이어서는 연료판매(-947억)가 뒤를 이었고 종합소매(-773억), 의류·잡화(-543억), 교육(-466억), 오락·문화(-437억), 여행·교통(-48억), 의료·보건(-5억) 등이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하반기 들어서는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올 들어 총 매출은 전년보다 883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 달했던 지난 상반기(1~6월) 국산 자동차 신상품 신용카드 매출은 1년 전보다 1785억원 많았다. 이외 1~9월 광주에서 매출이 늘어난 업종은 가구·가전(259억), 식품(232억), 전자상거래·통신판매(131억), 공과금·개인 및 전문서비스(130억), 금융·보험(17억) 등이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집콕족'의 비대면 소비와 재택근무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매출 773억원이 줄어든 종합소매점의 경우 매장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백화점(-617억)과 대형마트·유통전문점(-471억)은 타격이 컸지만, 슈퍼마켓(254억)과 편의점(61억)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한은 '지역별·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가맹점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하며, 해외사용분, 현금서비스, 법인 이용금액은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78.65 (+6.47)
↑ 코스닥	953.58 (+6.34)
↓ 금리(국고채 3년)	0.959 (-0.004)
↑ 환율(USD)	1102.70 (+3.00)

화순농능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 농협경제지구 연도대상 본상 수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경제지구 주관하는 2020년 생산자 조직 연도대상 본상을 화순농능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가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순 농능협 방울토마토 공선출하회는 2017년 결성된 조직으로 매년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공동생산 시범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육성, 품종 통일 등을 통한 고품질 생산, 회원농가와 농협 간 신뢰 강화, 전국연합사업단(K-토마토)을 통한 계통 출하 등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생산자 조직 연도대상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취급실적, 회원관리, 사업추진, 출하회 관리 등을 평가한다. 각 지역별로 상·하반기 우수 조직상 수상 조직 중 1개소를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한다. 본선 수상 조직은 상금 100만원, 시상탑 등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호남에 산다

외국인 상주인구 8만7900명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1명 꼴(11.5%)은 호남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는 올해 5월 기준 8만7900명으로 1년 전보다 1200명(1.4%) 증가했다. 호남권 외국인 인구는 전체(133만1800명)의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외국인 5명 중 3명 꼴(63.5%)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같은 기간 호남지역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는 전년보다 6.8%(300명) 늘어난 470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5세 이상 귀화허가자 상주인구는 0.4%(-200명) 줄어든 4만8600명이었다. 호남권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00명 늘어난 5만4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민자 취업자는 300명 증가한 5만7600명, 귀화허가자 취업자는 200명 늘어난 3000명을 나타냈다. 올해 호남권 외국인 고용률은 62.9%에서 62.1%로 소폭 줄었다. 유학생 체류자격 상주 외국인인 총 13만7000명으로, 광주·전남·전북에는 11.5%에 해당하는 1만 5700명이 살고 있다. 3년 전인 지난 2017년(9400명)에 비해 67.0%(6300명) 급증한 수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활용 연금지급 오류 방지위해 마련

사학연금 압류방지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21일부터 실시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압류관련 연금지급 오류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이라 불리는 압류방지계좌(이하 안심통장)는 사학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계좌이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신청 때 압류방지계좌와 일반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

는 경우가 많아 안심통장을 개설한 수급자에게 연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학연금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압류방지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과 자금성격, 압류방지계좌 여부 등이다. 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들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현재 185만원 이하)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사학연금은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사랑카드' 적립금 전달. 광주은행 송중옥(오른쪽) 은행장은 21일 광주시청(시청 이용섭·가운데)을 찾아 올해 '광주·전남 사랑카드' 적립금 1억64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22일 전남도에 1억3000만원을 전남도에 기부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대출 기준 완화

한은 광주전남본부, 대출액 확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년 초부터 지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2021년 1월4일(대출취급일 기준)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을 현행 일반 지원부문에서 '전략지원부문'으로 분류해 금융기관 대출액의 50%를 우선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이 개정·시행된다. 해당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해당 업체들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최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동력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현황 및 개선과제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1일 남부주택도시보증2센터를 광주시 서구 치평동으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부주택도시보증2센터는 광주와 전남, 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HUG의 도시재생 융자 상품에 관심이 높은 지역 고객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도시재생 융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주택도시보증2센터 광주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1일 남부주택도시보증2센터를 광주시 서구 치평동으로 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부주택도시보증2센터는 광주와 전남, 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HUG의 도시재생 융자 상품에 관심이 높은 지역 고객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도시재생 융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